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7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듯한



2부 17강 무엇이 그리도 희유(稀有)한가

2장은 수보리가 예를 갖추어 붓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해능은 제자가 선생에게 가르침을 청할 때는, 지금 수보리처럼 다섯 가지 의식(儀式)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자리에서 일어나, 2) 옷차림을 수습하고, 3) 오른쪽 어깨 축지를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면서 4) 손을 모으고, 우리러보되, 스승에게 눈을 떴지 말며, 5) '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질문을 드린다. (弟子講益, 先行五種儀, 一者從座而起, 二者端整衣服, 三者偏袒右肩, 右膝著地, 四者合掌瞻仰尊顏, 目不暫捨, 五者一心恭敬, 以伸問辭)

오늘 강의는 단어 두 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장로'라는 말의 곡절이고, 다른 하나는 '희유'라는 말의 함축입니다.

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아, 얼마나 유명한가! 미국 애들이 번안해서 부르냐" 하고 감탄했다. 한바탕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금강경>에서 분명하듯이, 장로는 본시 불교용어입니다. 이 말은 <어르신>을 뜻하는 팔리어의 '테라', 혹은 산스크리트어의 '스타비라'를 중국어로 옮길 때 채택한 것입니다. 육조 해능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장로라 했는가. 덕이 높고 나이도 드렸기에 장로라고 부른다(何名長老, 德尊年高, 故名長老)"

불교사를 좀 짚어볼까요. 붓다 입멸후 약 100년이 지나서 교단이 최초로 분열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에는 계율에 유연하고 재가와 유대를 더 강화시키려는 젊은 부류들의 열기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붓다 이래 내려온 승가의 전통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어르신네들의 고집이 부각했습니다. 이 중에서 젊은 집단을 이름 그대로 대중부(大眾部 Mahasanghika), 나이든 집단을 장로부(長老部 Theravada, Sthaviravada)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장로부 대신에, 같은 어르신을 뜻하는 말인 상좌부(上座部)를 쓰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중은 대중부로부터 발전했습니다. 다른 쪽 장로부 혹은 상좌부는 실론 등 남방에서 전승되었기에 실론상좌부라고도 부릅니다.

어쨌거나 지금 <어르신네>를 뜻하는 장로와 상좌, 이 두 이름은 원래의 의미를 잃고 말았지요. 장로는 아무래도 기독교에 넘겨준 듯하고, 그리고 상좌는 불교의 전유물

이 되었던 불교용어 표준화 또한 이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그러나, 용어들의 기원을 깨고 역사를 짚으며, 중첩된 의미의 지층을 탐색하는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합니다. 의미의 역사적 지층과 현재적 지배 사이, 그 차이와 엇갈림의 '노년'에서 새로운 지식과 학습이 태어날 것입니다.

무엇이 '희유'한가

하나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1) 붓다가 왕궁의 지위와 안락함을 내버린 것. "금 바퀴를 굴리는 왕의 지위를 능히 버리고 출가하다." 모든 코드가 지위와 재물에 맞추어져 있는 우리네 혈안에 견주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햇빛의 어법으로 '존재의 여부'에, 불교식으로 '생사의 비밀'에 유성출가(踰城出家), 길을 나선 것은 진정 희귀하고도 희귀한 일입니다.

2) 붓다의 특이한 신체와 모습. 이 점이 이

하나 나 있고, 또 보통 사람보다 몸피가 좋고, 또 자세히 보십시오. 옷 주름 뒤 성기는 전혀 도드라지지 않았습다. 그리고 등 뒤로는 둥그런 후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붓다의 자연적 신체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빛나는 몸' 혹은 '영광에 싸인 몸'을 그려낸 것입니다. 해능은 이 영광의 몸이 '삼계(三界)에는 비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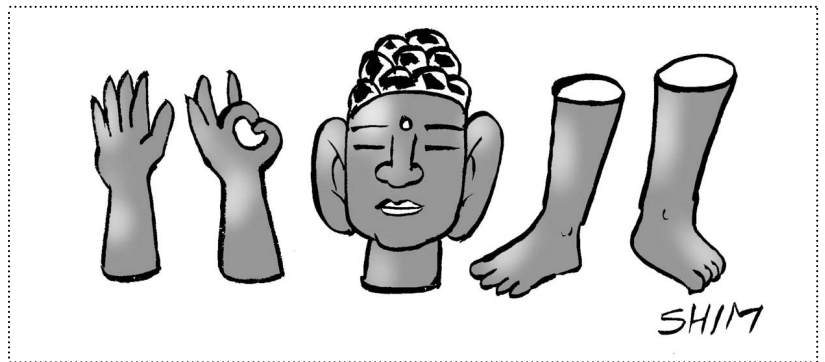
심신수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사람의 몸의 특징이 바뀐다는 것은 인도의 오랜 전통적 인식이고, 불교도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특징들'은 크게 32개, 그리고 다른 세세한 것들이 80개 있다고 합니다. '32상(相) 80종호(種好)'로 불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3) 무엇이 세번째로 희귀할까요. 첫 번째 희귀한 것은 '결단'이고, 두 번째 것은 '모습(의)'이니, 마지막 것은 당연히 '덕성'이라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능의 표현이 좀 까다롭습니다. 번역해 보면, '세 번째 희유는, 성(性)이 능히 팔만 사천 법을 함포(含攝)하고, 삼신(三身)이 원비(圓備)하였기, 그래서 희유하다고 했다.' 이 말은 '붓다의 덕성과 지혜가 팔만 사천의 법문을 자유자재로 섭괄할 만큼 되었고, 또 그로 하여 인간으로서 완전한 영적 성숙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붓다의 몸은 그리하여 육신(色身)이면서 영적 성숙과 축복으로 빛나며(輻身), 나아가 중생의 고통을 듣고, 세상의 진리를 전파해주시게까지(化身) 되었습니다. 이아말로 희귀한 중의 희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다시없는 사건, 기독교의 어법으로 하자면 '굿 뉴스(福音)'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처님의 몸은 왜 우리와 다를까



수보리는 "희귀합니다"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본문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세존의 "대체 무엇이 그리도 희귀하냐"에 대해, 해능은 다음 세 가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希有略說三義, 第一希有, 能捨金輪王位, 第二希有身長丈六, 紫磨金容, 三十二相, 八十種好, 三界無比, 第三希有, 性能含吐八萬四千法, 三身圓備, 以具上三義, 故云希有也."

해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금강경>은 '붓다의 여러 가지 몸'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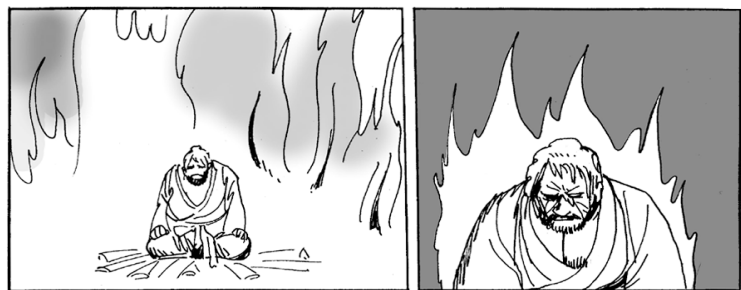
단적으로 우리가 절간에서 보는 부처님상은 우리와는 달지 않았지요. 대웅전이나 적광전이나 원통전이나 무량수전이나, 거기 계신 부처님들이 사람 몸보다 훨씬 크고, 또 색깔은 금색이며, 머리는 흑인들처럼 짧고 꼬불꼬불 말려있고, 이마에 흑(도

주장자 따라...

백운경한 선사(白雲景閑)의 '고향'



조태호



네티즌 교리문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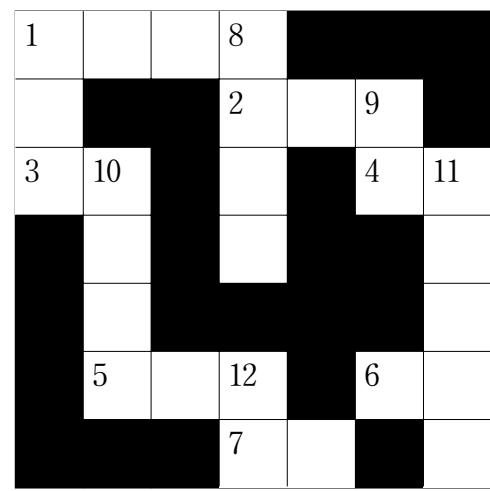
"말세란 말이 불교에서 나온 건가요?"

문 패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러 때 우리는 흔히 "말세(末世)야 말세"라고 중얼거립니다. 일반인들에게 말세라는 의미는 반도덕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이 불교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세보살)

답 1: 지하철역이나 버스 승강장 등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말세를 외치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이버 종교인들에게 말세는 곧 지구의 종말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말세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말세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가 재림할 때 가지를 말세라고 부르지요. 불교에서의 말세는 원래 불교의 삼시(三時)에서 나왔습니다. 삼시란 부처님께 입멸하신 뒤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그 가르침이 어떻게 실현되지 않는다는 역사관에 입각, 시대를 정법(正法) 상법(像法) 말법(末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설과 그 실천과 결과가 모두 갖추어진 시기를 정법시라하며 교설과 실천의 시기를 상법시 그리고 교설만 있는 시기를 말법의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삼시의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처님 입멸 후 1천년 혹은 5백년을 정법시 그 다음 천년을 상법의 시기 그다음 만년을 말법의 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사인연)

답 2: 중국에서는 복제시대부터 말세사상이 성행해 신행선사의 삼세교 선도의 정도 교 등에서 스스로 종지가 말세에 적합한 교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교왕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말세가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우니라. 이제 너희들은 천히 보고 천히 들으니 일찍이 여러 겁에 걸쳐 배우고 수행한 사람들임을 알겠다. 한 번 들은 다음에는 다시 물려섬이 없거라." 말세란 궁극적인 의미에서 혼란과 어려움의 시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영역의 범주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년을 넘어가면서 또한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극심한 정신적인 공황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중 배사상과 결합된 극심한 정신적 혼돈은 우리를 충분히 말세의 분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다양한 현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잘살아보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 가로**
1. 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와 영화
 2. 자연의 경치를 주제로 그린 동양화 3. 오대산과 인연이 깊은 보살 4. 중요한 비밀 5. 원손은 배꼽 앞에 놓고 오른쪽은 곁은 땅을 가리키는 자세, 향마○○○ 6. 프랑스의 작가 모리스 르블랑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유명한 도둑 7. 파도의 높이.

정답은 26면에

세로

1. 국보 제1호 문화재 8. 원나라 스님 몽산화상이 설한 법어를 모은 책을 줄여서 부르는 말 9. 불화 한쪽 구석에 그린 이, 시주자 등을 기록한 것 10. 지심구명례 영산당시 ○○○ 십대제자 11. 그리스인 국왕 밀린다(Milinda)와 나가세나존자의 대화를 기록한 경전, 밀린다왕문경 12. 사람이 많음을 파도에 비유한 말.

백운경한(白雲景閑: 1299-1375): 고려말 스님. 1351년 원나라에 가서 석옥청공(石屋淸琬) 스님의 법을 이음. 백운 스님에 대한 현전 자료로 <백운화상어록>이 있음.